

# 農業經濟研究의 現水準과 課題

金 文 植\*

〈目 次〉

- I. 序 言
- II. 初期의 農業理論
- III. 歐美에서의 農業經濟學의 成立
- IV. 8.15解放 이후 研究方法의 變遷
- V. 分野別 研究動向
- VI. 앞으로 研究되어야 할 課題
- VII. 結 言

## I. 序 言

本論考는 農業經濟研究의 現水準과 課題의 서베이에 대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要請에 의해 作成된 것이다.

筆者는 農業經濟學의 現位置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보다 學問的으로 앞섰던 先進國의 農業經濟學의 發展過程을 살펴 볼 필요성을 느꼈으며 다음으로는 우리 農業問題를 經濟學的 側面에서 다루기 시작한 日帝下의 研究를 간단하게 돌이켜 볼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 現在의 우리 農業經濟學이 農村社會의 諸經濟現象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그 因果를 分明히 밝혀줄 수 있는 內容으로 충분히 體系化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8.15解放 이후 漸進的으로나다 着實한 成長과 內實을 期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農業經濟學이 成長해 온 來歷을 年代的으로 追跡해 보고 싶은 의욕에서 本論文의 前半部는 時間의 경과에 따르는 理論의 變遷내지는 研究技法上의 進步過程을 다루었다.

그 後半部는 農業經濟學에 대한 研究가 활발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專攻分野別 分化를 감안, 主要分野別 즉 農業生産 및 經營을 비롯한 農產物價格 및 流通, 農業信用 및 團體, 農業發展 및 資源, 農業制度 및 政策, 그리고 農業史의 6개 分野別로 研究動向을 살펴 보았다.

한편 美國의 研究動向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의 農業經濟學의 現位置와 앞으로 개척해야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한 研究課題나 未盡한 研究分野가 무엇이냐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初期의 農業理論

우리나라의 農業經濟研究는 어느 時代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分明하지 않으나 많은 學者들은 李朝後期 實學時代의 重農學派의 한사람인 丁茶山先生에서 찾으려는 傾向이 없지 않다.<sup>(1)</sup>

다만 케네(F. Quesnay)가 그의 『經濟表』(1758)에서 重農主義理論을 폈다 하여 그를 農業經濟學者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이, 또는 리카도(D. Ricardo)가 그의 『經濟原理와 租稅論』(1817)에서 差額地代論을 完成하였다 하여 農業經濟學者에 포함시키지 않듯이, 丁茶山이 閭農制나 均田制 및 篤農策의 實施를 강조하였다 하여 그를 農業經濟學者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구태어 1945년 8.15해방 이전에서 우리 農業經濟學의 成立時期를 찾는다면 아무래도 1930년대가 아니었던가 한다.

李勳求氏의 『朝鮮農業論』(漢城圖書株式會社, 1935)과 印貞植氏의 『朝鮮의 農業機構分析』(東京白楊社, 1937, 日文) 및 『朝鮮의 農業地帶』(1940, 日文)의 出版을 起點으로 우리 農業의 生産樣式과 特質을 비롯한 土地의 制度 및 利用, 農產物의 價格과 流通, 農業金融 및 農家所得 등 農業問題 全般에 걸친 經濟學的 研究가 시작된 年代이기 때문이다.

물론 兩氏 間에는 經濟思想이나 論理도 差異가 현저하였고, 李勳求氏가 資本主義的 近代理論에 立脚에 있었던 데 대해, 印貞植氏는 社會主義的 古典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어 서로 對照的인 理論의 學者였다.

하지만 모두가 韓國의 農業問題를 包括的으로 그리고 體系的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時期를 우리 農業經濟學의 嬰兒期로 보아 무방할 것 같다.

1930년대의 前半期는 世界大恐慌期로서 從前에 볼 수 없었던 農產物價格의 暴落現象을 비롯한 農村의 慢性的 失業, 農家負債의 累增 등 一聯의 事態의 進展은 이들을 포함한 많은 識者들로 하여금 農業問題에 대한 格別한 關心의 表示와 研究에 대한 충동을 일으키는데 充分한 時代的 狀況이었다.

같은 時期 日人 久間健一氏의 『朝鮮農業의 近代的 樣相』(1935, 日文)과 岩片磯雄氏의 『朝鮮米生産費에 관한 調査』(1936, 日文)가 發刊된 시기이기도 하다.

1930년대 後半期 農業恐慌에서 벗어날 무렵은 日帝가 中日戰爭 및 第2次 世界大戰의

(1) 金好愛, 「丁茶山의 觀農政策論 — 牧民心書를 중심으로」, 『淑大史論』, 제6권.

戰亂期에 드러난 時期로서 이때의 學問研究는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休眠狀態에 들어서 있었다.<sup>(2)</sup>

다음 1945년 8.15해방 이후의 우리 學者의 研究活動을 살펴 볼 차례이나 우리 學界는 해방 이후 歐美諸國의 많은 영향을 直·間接적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는 데는 歐美諸國에서의 農業經濟學의 成立과 發展過程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III. 歐美에서의 農業經濟學의 成立

18世紀 中葉부터 19世紀初에 걸쳐서 農業經濟에 관한 理論家로서는 프랑스의 케네(1694~1774)와 英國의 영(Arthur Young, 1741~1820) 그리고 獨逸의 태어(Albert Daniel Thaer, 1752~1828)을 列擧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케네는 『經濟表』(1758)를 作成, 農業만이 純生産을 낳을 수 있다는 「農은 天下之大本也」의 理論을 펴 重農學派의 始祖가 되었고, 영은 그의 『旅行記』에서 各地域의 農業을 비교 연구하는 데 있어 最初로 經營學의 接近을 도입함으로써 有名하다.

태어는 그의 著書 『合理主義農業原理』(*Grundsätze der rationellen Landwirtschaft*, 1810)에서 農業의 技術의 側面의 研究와 더불어 經營學의 側面의 研究를 결들였고, 특히 農業經營의 目的이 貨幣的 純益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으로 有名하다. 다만 그의 學說은 後代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影響面에서 貢獻을 남긴 學者로는 폰·튀넨(Johann Heinrich von Thünen, 1783~1850)이 꼽히고 있다.

그는 태어가 農業技術學에 사로잡혀 經營學의 思考로서 一貫하지 못한 點을 발견, 『孤立國』(*Der isolierte Staat*, 1826)에서 經營學의 思考方式을 示範하였으며, 특히 農業立地와 經營形態의 相互關係를 밝히는 原理를 세운 점에서 높이 評價받고 있다.

그 후 獨逸에서의 農業經營研究는 에레보(Fr. Aereboe)와 브린크만(Th. Brinkmann)<sup>(3)</sup>에 의해 繼承되었으며 이들은 20世紀初期에 代表的인 學者였다.

에레보는 그의 著書 『農業經營學總論』(*Allgemeine landwirtschaftliche Betriebslehre*, 1905)에서 튀넨과 같은 立場에 서서 당시 새로웠던 限界理論을 도입하여 自身의 理論을 體系化하였다. 튀넨의 視野가 그 時代 獨逸의 한 地方에 局限되어 있었던 데 대하여 에레보는 歷史的이고도 汎世界的인 視野에서 農業經營을 考察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1950年代의 農業經營學講義에 있어 日人들의 譯本<sup>(4)</sup>을 活用, 그들 理論이 講義內

(2) 世界大戰期에는 文定昌, 蔡丙錫, 張永哲諸氏의 經濟論說이 『朝鮮農會報』에 실렸을 뿐이다.

(3) Brinkmann, *Das Oekonomie des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s*, 1922.

(4) 브린크만著, 大槻正男譯, 『農業經營學經濟學』(1940); 브린크만著, 永友繁雄譯, 『農業經營方式』

容의 大宗을 이루었던 것을 알고 있다.

다만 獨逸에 있어서는 現在도 그 같은 學問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農業經濟學보다는 農業經營學(Landwirtschaftlichen Betriebslehre)의 研究에 置重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農業政策(Agrarpolitik)의 研究과 教育은 別途의 農業政策學科 또는 專攻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近來에 學制的 및 學問의 直接的으로 影響을 받았고 또한 現在도 받고 있는 나라는 美國으로서, 이 나라의 農業經濟學의 成立과 그 研究動向을 살펴 보는 것이 곧 우리 農業經濟研究의 背景을 理解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美國에서의 農業經濟學은 20世紀에 들어서면서 胎動하였다 한다.<sup>(5)</sup>

미네스타大學校에 最初로 農業經濟學講義가 설치된 것은 1910년으로 擔當教授는 農學科 교수인 보스(Andrew Boss)였고, 農業經濟學의 發展에 크게 공헌한 와렌(G.F. Warren) 교수가 1903년에 코넬大學校에 부임할 때만 해도 그는 園藝學者였다. 그가 果樹園의 實態調査에 參與한 것을 계기로 經營問題에 關心을 갖게 되고 마침내 美國의 유명한 農業經濟學者로 成長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農學科에서 農業經營學科가 分離되어 獨立學科로 出發하게 된 것은 1910년이었고, 學科의 分離는 코넬大學校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農業經營에 관한 最初의 教材는 와렌교수와 보스교수에 의해 1913년과 1914년에 각각 著作 出版되었다. 그리고 1910년에는 美國農業經營學會(American Farm Management Association)의 創立을 보게 되고 初代會長에는 美農務省의 農學者 스펀먼(William J. Spillman), 二代會長에는 와렌이 각각 선출되었다.

한편 같은 時期에 農業技術學分野가 아닌 一般經濟學分野에서 農業經濟學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하바드大에서는 經濟學教授 카버(Thomas Nixon Carver)氏가 1903년에 農業經濟學(Economics of Agriculture) 강의를 맡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위스콘신大에서는 테일러(Henry C. Taylor)교수가 같은 강의(Agricultural Economics)를, 그리고 코넬大에서는 라우만(George N. Lauman)교수가 農村經濟(Rural Economy)라는 科目을 처음 맡았었다.

테일러교수는 1905년에 『農業經濟學』(Agricultural Economics)이라는 著書를, 그리고 카버교수는 1911년에 『農村經濟學原理』(Principles of Rural Economics)라는 著書를 각각 펴냈다.

위와 같은 農業問題에 대한 分派의 接近(技術學과 經濟學)으로 農業經營學科와 農業經濟學科를 別途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무렵 兩科 分離設置의 妥當性에 대한 의문을

의 原理』(1941, 日文); 에데비著, 柏祐賢譯, 『農業經營學의 基礎理論』(1942, 日文).

(5) J.D. Black, *Introduction to Economics for Agriculture*, 1953, pp.14-15.

갖게 된 各州立農科大學은 農大聯合會(Land-Grant College Association)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한 審議를 依賴하였고, 그 結果 農業經營은 農業經濟學의 한 分野에 不過하다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그 結論에 따라 農業經濟學科는 農業經營學科를 吸收하고 이러한 統合은 研究와 教育分野를 農產物流通, 信用, 小作制, 그리고 때로는 農村社會까지로 擴大하였으며 農業經濟學은 農業生產經濟學의 應用分野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農業經濟學의 研究分野의 擴大는 1919년 테일러교수의 農務省 農業經濟局長 就任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 지게 되었다.<sup>(6)</sup>

다만 美國農業經濟學界의 接近上의 分派는 현재 農業技術學에서 出發한 와덴교수를 開祖로 하는 코넬學派와, 一般經濟學 및 歷史學派의 影響을 받는 테일러, 블랙교수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위스콘신-하바드學派 以外에, 英國의 正統經濟學의 影響을 질게 받은 슐츠(T.W. Schultz)와 히더(E.O. Heady) 두 교수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아이오와學派로 三分되어 있다는 것이다.<sup>(7)</sup>

물론 이러한 學派別 歷史的 背景이나 經濟思想 및 接近方法上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의 美國의 農業經濟學界는 그 研究對象을 비롯한 研究方法이나 技法에는 大學間에 大差 없게 되었고 8.15解放以後 美國에서 修學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學者들이 우리나라 農業經濟學의 교육과 研究분야에서 中樞的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 IV. 8.15解放 이후 研究方法의 變遷

##### 1. 유럽系理論의 影響期

解放이 된 다음 해인 1946년 水原 農科大學에 우리나라 最初의 農業經濟學科가 설치되었으며 科主任에는 金俊輔教授가 就任, 2人的 教授(鄭南圭氏와 李弼圭氏)와 함께 農業經濟學科의 教科課程의 編成을 비롯한 講義 및 研究에 임함으로써 農業經濟學의 教育이 出發하게 되었다.

특히 同期間에는 土地改革問題를 둘러싼 論爭이 한창이었고 이 무렵에 金教授는 所望스러운 土地改革을 위한 理論書인 『土地改革論要綱』이란 冊子를 1947년에 發刊, 農地改革法 制定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同期間은 日帝時代의 研究方法이나 教科內容을 거의 그대로 繼承 受容하는 段階였고, 印貞植氏는 日帝時代에 연구한 『農業地帶』와 『農業機構分析』中的 一部와 『糧穀供出10

(6) J.D. Black, *ibid.*, p. 16.

(7) Choe Yang Boo, *An Essay on the Idea and Logic of Agricultural Economics*, 1977.

年史』와 『農地改革法案의 批判』을 增補한 『朝鮮農業經濟論』이란 小冊子를 博文出版社에서 經濟學全集 第4卷으로 1949년에 出版하였다.

解放 직후 이 分野의 우리말 書籍이 전혀 無다시피 했던 當時에는 이 책이 많이 읽힐 수밖에 없었다.

그밖의 農業經濟關係書로서는 歷史的인 研究인 全錫淡氏의 「李朝農民經濟史」(『李朝社會經濟史』)가 있었고 이상의 3개의 研究가 1940年代 農業經濟에 관한 主要한 學術的 研究였다.

1950年代에 들어서서도 그 前半에 있어서는 6.25事變의 戰禍의 影響을 받아 學術研究다운 研究는 거의 없었고, 大學敎堂에서의 講義는 日帝時代에 敎育받은 敎授들에 의한 유럽學風의 흐름과 學問內容이었으며 農業調查研究의 基礎가 되는 농가경영실태조사 的 帳簿體系나 樣式은 日本 京都大學에서 開發한 것을 그대로 빌려다 사용하였다.

따라서 1945~1949년의 期間은 歐日學問 影響의 延長期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農業經濟學의 講義와 研究方法에 一大轉換期를 맞이하였다.

## 2. 美國 先進理論의 受容

1950年代 後半期는 美國에서 農業經濟學을 專攻한 學者들이 귀국하기 시작한 時期로서 講壇에서의 講義의 內容이나 문제에 接近하는 方法 또는 分析技法에 있어 美大學의 學風을 대담하게 도입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54년에 귀국한 鄭南圭敎授는 즉시 「低開發經濟의 發展과 經濟問題接近에 관한 批判的 考察」(Critical Review of Different Economic Approaches and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Economy)이라는 論文을 1954년 『韓農誌』 創刊號에 發表한 바 있다.

이 論文은 위스콘신大에서의 그의 學位論文의 要約으로서 主로 다루고 있는 內容은 먼저 後進國經濟發展問題에 接近하는 데 있어서의 네가지 接近方法으로 古典學派, 新古典學派, 마르크스學派 및 制度學派<sup>(8)</sup>의 理論을 要約하고, 그의 指導敎授이던 파슨스(Kenneth Parsons)의 經濟思想이자 위스콘신大의 經濟學派인 制度學派의 紹介와 더불어 그와 같은 接近方法을 강조하였다.

들론 鄭南圭氏의 論文이 農業經濟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經濟發展論이었으나, 그는 여기서 當時의 美國經濟學界의 新動向을 비롯한 新古典學派의 限界原理 및 不完全競爭理論이나

(8) 制度學派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獨逸이나 英國의 歷史學派의 影響을 받아 「制度」 또는 「社會的 價値」를 매우 重要視하며, 社會的 價値가 集團行動經濟學에서 중요한 部分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社會的 價値는 安定的 社會組織의 達成을 비롯한 秩序(order), 正義(justice), 平等(equality), 保障(security) 및 經濟安定 등을 具現하게 된다는 것이다. 美制度學派의 理解를 위하여는 콤포몬스의 著書가 參考가 된다. J.R. Commons, *The Economics of Collective Action*, Macmillan Co., New York, 1950.

케인즈(J.M. Keynes)의 巨視理論을 紹介하고 農業經濟學徒라 하더라도 微視 및 巨視理論에 대한 基礎적인 지식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데 크게 貢獻하였다.

鄭博士의 歸國에 이어 美國에서 先進農業理論을 修學하고 귀국, 教育界나 行政界에 進出하는 者가 불어나기 시작하였으며, 學會는 새로운 接近方法대지 研究方法 및 上級の 原理를 받아들이는 데 汲汲하였다.

### 3. 實證主義的 計量的 研究

美國에서의 農業經濟研究方法의 來歷을 살펴 볼 때 初期에는 主로 敘述的方法(descriptive method)<sup>(9)</sup>에 의한 研究였다. 調査한 實態와 간단한 分析結果를 表와 그림을 이용하여 說明하는 方法을 사용하였으며, 非理論的이요 歸納的인 것이 主宗을 이루었다.

다만 敘述的 研究段階에서는 帳簿를 이용하는 記帳과 農村調査가 必須的이었고 실제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그 哲學的 바탕은 實證主義였다.<sup>(10)</sup>

그러나 時日이 경과함에 따라 그와 같은 敘述的인 方法에 의한 大部分의 研究는 研究自體를 위한 研究로 變化하고 特定の 會計의 係數(例 資本의 廻轉率 또는 收益率)의 되풀이되는 算出과 되풀이되는 調査 및 報告書作成으로 기울어 갔다.

더우기 1930年代의 不況을 맞아 農產物價格이 폭락하고 전혀 採算性이 保障되지 않는 事態에 接해 그러한 敘述的 研究는 전혀 無意味한 것이 되고 말았다.

특히 第2次 世界大戰의 終了後에 또 다시 敘述的 方法에 대한 批判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實證主義的<sup>(11)</sup>이긴 하지만 時事的인 特定の 문제를 포집어내어 그에 대한 解答을 줄 수 있는 研究가 되지 못하고 理論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傳統的 研究方法에 대한 이러한 不滿을 해소할 수 있고 새로운 社會的 要請에 副應할 수 있는 研究가 나타났으며, 그것이 다름아닌 히디코수의 傑作인 『農業生產經濟學』(*Economic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esource Use*, Prentice-Hall, Inc., New Jersey, 1952)의 出版이었다.

그 理論은 個別農家가 直面하는 實際的인 農業經濟問題를 定義하고 解答을 주는 데 強力

(9) 이와 같은 初期研究方法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現在도 계속되고 있다. 그 例는 Southwestern Minnesota Farm Management Association, 1930 *Annual Report*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筆者가 研究發表한 바 있는 「線型計劃에 의한 乳牛經營의 診斷 및 改善에 관한 研究」(『經濟論叢』, 15권 3호)도 線型計劃部分만 除外하고는 위의 *Annual Report*의 研究方法를 따른 것이다.

(10) G.L. Johnson, "Stress on Production Economic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VII (June 1963).

(11) 研究에서 實證主義的인 方法이란 먼저 問題를 提起하고 假定을 설정한 후, 實驗過程을 設計하여 資料를 蒐集處理한 다음 얻어진 結果로써 앞에서 設定한 假說을 검증 해석하는 研究方法를 말한다.

한 理論的 手段을 제공하였으며, 우리나라 農業經濟學徒들도 특히 美國에서 訓練받은 學者나 研究者는 大部分 直·間接으로 그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아 過言이 아닐 정도로 美國의 農業問題 研究方法上의 一大轉換의 契機가 되었었다.

海外練修의 機會를 갖지 않았지만 書籍을 통해 히더의 理論的이고 特定問題에 接近하는 實證的인 研究方法을 우리에게 最初로 소개한 學者는 李弼圭教授<sup>(12)</sup>였다.

李教授는 1966년에 「水稻作에 있어서 肥料三要素施用에 관한 經濟分析—특히 全南 和順, 長城地域 施肥量決定을 위한 限界分析」(『全南大 開發研究』, 4집)에서  $P_x/P_y = \Delta y/\Delta x$ 式的 投入物의 均衡的 結合을 實驗한 바 있으며 N(窒素), P(燐酸)의 限界生産力을 計測하고 N의 單價가 稻穀單價의 7.2倍, P의 3.7倍 이하면 反當 各各 10kg, 6kg 이상을 施用할 價値가 있다는 것을 認知한 바 있다.

李教授의 研究는 限界分析初期의 연구로서 그 研究結果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거니와 1950年代末 電子計算機의 發明은 農業研究上 두번째의 大變革을 가져왔다.

이제는 數拾個의 變數를 가진 方程式을 短時間에 계산해 낼 수 있게 되었고 農業經濟學도 數學과 統計學을 이용한 精緻性을 더한 科學으로 발달음하게 되었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農業經濟學會誌는 數學과 統計學을 活用한 研究들로 각 채워지게 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分析技法으로는 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 線型計劃(linear programming, game theory 포함), 僞裝實驗(simulation), 投入產出分析(input-output analysis), 各種生産 및 需要函數의 模型設計(model-building), 알라스型的 一般均衡接近(general equilibrium approach) 등이었다.

이러한 計量的 方法에 의한 主要研究題目만을 列擧한다 해도 紙面이 허락지 않을 정도로 많다. ① 윌 더글라스 生産函數를 援用한 潘性執氏의 「勞動生産성과 勞賃」(『農業經濟研究』 제19집, 1977). ② 重回歸分析法의 農業信用分析에의 應用研究인 金榮喆氏의 「農業金融構造의 變遷」(『韓國農業의 近代化過程』, 韓國農業經濟研究院, 1980). ③ 線型計劃을 이용한 經營分析인 河端玟氏의 「農業經營分析을 위한 線型計劃法 導入利用」(『江原大研究論集』, 제11집, 1977); 金文植, 「多段階線型計劃에 의한 動態的 農場設計에 관한 研究」(『서울大生農系論文集』, 제24집, 1974). ④ 시스템의 構造方程式(structural equation)을 이용한 金祥基氏

(12) 李弼圭, 「作物生産經濟와 限界分析」(『韓農誌』, 제7호, 1961); 「農業經營計劃에 있어서 線型計劃法에 관한 研究—특히 게임論的 接近」(『全南大論文集』, 7집, 1962); 「作物生産經濟에 있어서 新計劃과 活動分析에 관한 考察」(『全南大 開發研究』, 1963) 등에서 히더理論을 소개하였다.



의 「PL480 糧穀의 對韓輸送이 韓國의 價格과 穀物의 國內生産에 미친 영향」(『農經研究』, 제13집, 1971); 繼起的 數理計劃法(recursive programming)을 사용한 安忠榮氏의 「農業開發分析」(『農業經濟研究』, 제19집, 1977). ⑤ 시스템分析에 의한 研究로서 成培永, 「肥料分配에 대한 接近」(『農業經濟研究』, 제16집, 1974); 李正漢, 「韓國農業의 構造的 變化를 위하여 一生産物供給 및 投入物需要의 推定」(博士學位論文, 1974, 英文); 金東敏, 「農業部門分析과 시뮬레이션 계획」(Rosimiler編, 『農業部門計劃』, 1978). ⑥ 一般均衡的 接近에 의한 金學瓏, 「인플레이션과 농산물가격과 비농산물가격」(『農經研究』, 제21집, 1980). ⑦ 供給函數推定인 文八龍, 「穀物價格의 效果測定」(『農經研究』, 제10집, 1968); 薛仁坡, 「韓國에 서의 豫想米價에 대한 供給의 反應」(『農經研究』, 제14집, 1972, 英文). ⑧ 金東熙, 「韓國 農業部門의 發展을 위한 戰略」(英文) 등은 實證的인 計量分析을 代表하는 論文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의 發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農學徒들의 欲求不滿처럼 그들 研究 중 우리 小農社會의 諸問題, 이틀대면 生計農의 生産 및 消費行爲, 農家의 負債, 地代가 農業發展에 미치는 영향, 農村의 不足한 勞動力 등 매우 現實的인 문제에 대해 해결을 줄 수 있는 研究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實證主義的인 研究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 중 적지 않은 研究가 農村現實과 遊離된 것이라는 데 問題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研究에 있어 方法上 規範主義的(normative) 研究가 너무 적었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즉 現存實態의 原因의 究明으로부터 出發하여 문제의 表現과 價値判斷(資料의 決定) 및 規範에 관한 分析的 研究가 극히 制限되어 있다.

우리에게 規範的으로 歷史的인 研究를 代表할 만한 研究는 金俊輔教授의 『農業經濟學序說』(高麗大 出版部, 1966)을 들 수 있으며, 同書는 全體的 經濟機構下의 小農의 支配 및 被支配條件을 究明함으로써 農業理論을 體系化하려 하였다.

이 研究는 實證的인 研究이면서도 히더 以後 美國의 農業研究를 휩쓴 實證主義一貫의 그것 이 아니라는 데 注目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實證的인 土臺 위에 規範主義로 體系化되는 相互依存과 統一로서의 研究였다고 볼 수 있으며, 農學徒는 앞으로 좀 더 規範主義的인 研究에도 關心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農業經濟研究方法上의 變化를 겪으면서, 研究分野에 있어서는 分化되고 專門化되어 가는 發展傾向을 취해왔다.

## V. 分野別 研究動向

먼저 分野別 論文篇數를 보면 다음 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表〉 年代別 分野別 論文 및 著書

年 度	分 野	農業經營 및 生産經濟學	農産物價格 및 流通	農業信用 및 團體	農業發展 및 資源	農業制度 및 政策	農 業 史	計
1945 ~ 49		—	—	—	—	2	—	2
1950 ~ 59		2 (18.1)	—	—	4 (36.4)	4 (36.4)	1 (9.1)	11 (100.0)
1960 ~ 64		16 (39.0)	8 (19.5)	2 (4.9)	7 (17.1)	3 (7.3)	5 (12.2)	41 (100.0)
1965 ~ 69		54 (38.3)	20 (14.2)	6 (4.3)	32 (22.7)	16 (11.3)	13 (9.2)	141 (100.0)
1970 ~ 74		71 (31.8)	46 (20.6)	10 (4.5)	57 (25.6)	28 (12.6)	11 (4.9)	223 (100.0)
1975 ~ 79		78 (26.2)	54 (18.1)	15 (5.0)	93 (31.2)	42 (14.1)	16 (5.4)	298 (100.0)
計		221 (31.0)	128 (17.9)	33 (4.6)	193 (27.0)	93 (13.1)	46 (6.4)	714 (100.0)

註：( )는 構成比인。

(1) 農業經營 및 生産經濟學分野에서 1961년의 李弼圭教授의 「作物生産經濟의 限界分析」(『韓農誌』, 제7號)을 포함한 221篇의 論文과 著書,

(2) 農産物價格 및 流通分野에서 128篇의 論文과 著書,

(3) 農業信用과 團體分野에서 1964년의 朴圭星, 「韓國農業協同組合의 歷史的 考察」(『東湖 李徽載博士 回甲紀念論文集』)을 비롯한 33篇의 研究,

(4) 農業發展 및 資源에 관하여는 故 鄭南圭博士의 “Critical Review of Different Economic Approaches and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Economy”(『韓農誌』, 제1호, 1955)를 비롯한 193篇의 研究,

(5) 農業制度, 農業政策分野에서는 朴基赫教授의 “Outcome of Land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Journal of Farm Economics, 38, 1955)를 포함한 93篇의 研究,

(6) 農業史分野에서는 46篇의 研究 등이 수행되었으며 1945년 8.15解放 이후 1979년까지 모두 714篇<sup>(13)</sup>의 研究가 發表되었다.

이것을 年代別로 본다면 1950年代에는 11篇이란 매우 적은 數였으나 1960年代 前半에 41篇, 後半에 141篇, 그리고 1970年代 前半에 223篇, 後半에 298篇의 研究가 수행됨으로써 量的으로 큰 成果를 거두었다.

### 1. 農業經營 및 生産

이 分野에 있어서는 農業所得을 결정하는 主要要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零細農을 止揚할 수 있는 바람직한 生産構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農業增産을 위한 生産基盤

(13) 實際는 筆者가 모르는 研究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많을 것이다.

의 정비문제 등에 관심이 쏠렸으며 한편「研究方法에 있어서 새로운 技法, 특히 限界原理가 應用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農家所得을 결정하는 主要要因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연구한 主要論文으로서의 다음 의 두개를 들 수 있다. 延圭執, 「農家經濟를 規制하는 要因의 考察」(『清州大論文集』, 1957) 을 비롯한 李正漢, 「南海農村調查報告」(『晉州農大研究報告』, 1962) 등이 그것이며, 研究對象이나 그 技法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農家所得決定要因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였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60年代는 零細農을 지양할 生産構造(經濟的인 考察)와 生産基盤(技術的인 側面)에 관심이 높았으며, 趙漢寶氏는 「韓國農業의 零細性과 生産構造變貌에 대한 分析的 考察」(『仁川教大論文集』, 제1輯)에서 農民問題내지 農業問題의 發展的 해결을 위해서는 零細性을 克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研究는 李源浩, 「山地 開拓農業의 營農組織에 대한 考察」(『東湖 李徽載博士 回甲紀念論文集』)에서도 發表되었다. 다만 李教授는 技術的인 側面(氣候와 地勢)을 考慮한 分析에 重點을 둔 點에서 달랐다.

세계 農業經營研究方法에 있어서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60年代는 限界原理를 비롯한 新技法의 導入에 關心을 갖기 시작한 年代이기도 하였다.

내제 이 기간은 農村調查가 활발히 進行되고 實態調査에 의한 分析이 많았던 時期였다. 具千書, 「耕地整理地區에 대한 經營經濟의 研究—華城郡, 金陵郡地區에 대한 經營經濟의 研究」(農村振興廳 研究報告書, 1965)라든가 鄭甲源, 「農地移動 및 經營方法에 관한 實證的 考察」(『高大論文集』) 및 李弼弼, 「光州地方의 102個 穀作農家の 農場所得의 推定」(『農經研究』, 제9집, 1967) 등 農村調查分析에 力點이 두어졌다.

다섯째 農家經營 全般的인 문제에 대한 關心보다도 個別作目이나 家畜生産에 대한 經營分析과 地域的인 特性分析이 활발해지고 자연 投入物의 合理的인 活用問題가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傾向으로 흘렀다.

當時에 畜産經營을 다룬 論文으로서는 朴振煥, 「韓牛飼育의 慣行과 經濟分析」(서울대 농대, 1968)을 비롯한 3편의 論文이 있었고, 그 밖에 作目別 研究로서는 사과, 포도,<sup>(14)</sup> 감자, 椗作, 옥수수,<sup>(15)</sup> 水稻作,<sup>(16)</sup> 林業 및 油菜研究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地域別 經營의 特性을 求하기 위한 研究도 점차 活氣를 띄게 되었는데 前掲한 「江原道 옥수수生産의 經濟的 分析」을 비롯하여 高宗元의 「濟州道 農業經營의 分析과 改善方

(14) 金祥基, 「포도生産地에 관한 研究」, 『農村振興廳研究報告』, 11집.

(15) 權宅晉·黃基鉉, 「江原道 옥수수生産의 經濟的 分析」, 『農村振興廳研究報告』, 9집.

(16) 李瓊鉉, 『韓國과 日本의 水稻作經營比較』, 農村振興廳 研究報告書.

案」(『濟州大論文集』, 제1권), 揚平郡 및 潭陽郡內의 兩部落의 林業經營研究<sup>(17)</sup> 및 太白地域農業經營分析<sup>(18)</sup>이 그것이다.

여섯째로 1960年代 後半期는 그 前半期에 도입된 新分析技法이 實際問題에 應用되기 시작한 時期였다 할 수 있다. 李正漢·李弼圭, 「作物生産에 있어서의 投入·産出 및 資源利用의 代替關係研究」(『全南大 開發研究』, 제3집)는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研究는 極少數의 學者에 限定되어 있었으며, 李弼圭教授는 1960年代 農業經營研究에 있어 最多論文發表者였으며 모두 11篇의 論文을 발표한 바 있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農業經營 및 生産經濟學의 研究는 더욱 활발해지고 그 論文發表數에 있어 1960年代의 70篇에 비해 1970年代에는 그의 2倍가 넘는 약 150篇으로 늘어났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增收力이 큰 統一系 米品種이 開發되었으며 農業機械化의 普及이 두드러지게 빨랐던 시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農村生活環境改善과 農家所得增大에 關心을 기울이기 시작한 年代이기도 하다. 자연 農業經營研究는 그와 같은 세가지 分野에 集中 研究가 많았다.

1960年代 後半부터 있었던 工業化 및 基幹産業建設의 本格的인 推進에 따라 農村勞動力이 不足하기 시작하고 農村賃金이 오름에 따라 導入되기 시작한 小型動力耕耘機의 利用形態와 問題點 등을 찾기 위한 研究가 시작되었다.

李瑣鉉·鄭昌柱, 『韓國의 農業機械化分析』(서울대 농대, 農業科學研究所 研究報告書, 1973); 申東完, 『農業勞動力의 推移와 機械化』(農村振興廳 研究報告書, 1977) 등 10篇의 農業機械化에 관한 研究論文이 發表되었다.

初期의 論文들은 原理的인 側面을 重點의으로 다루면서 대체로 小農經營의 過剩投資現象의 可能性과 低位의 採算性에 대해 주로 다룬 데 대하여, 後期의 論文들은 機種別 經濟의 效果를 分析했으며 大體로 小農機械의 경우 그 利用率을 높일 경우 個別農家에 있어서도 採算性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안된다고 論하고 있다.<sup>(19)</sup>

이 때에 農業의 機械化問題에 못지 않은 關心事가 된 것은 技術的으로 優秀하다는 統一系 米品種이 經濟的인 面에서도 과연 그와 같은 效果가 있겠는가 하는 點이었다. 金厚根, 「一般米와 統一系統米生産의 經營分析」;<sup>(20)</sup> 柳哲吳, 「統一米生産의 經濟的 分析」;<sup>(21)</sup> 金禮陽,

(17) 朴龍求, 「農家經濟에 대한 林業經營의 役割에 관한 研究」(『高大大學院論文集』, 1967).

(18) 吉鎔鉉, 「太白山地域 農業經營의 構造」(『慶熙大 國土綜合開發研究論文集』, 제3권, 1970).

(19) 李正漢·李昇虔, 「部落水準에 있어서 農業機械化의 適正水準」(『慶尙大 農經研報』, 제11집).

(20) 慶南 晉陽郡 金谷面 亭子里의 事例研究 (『慶尙大 農經研報』, 제11집).

(21) 서울大學院 碩士論文, 1972.

「忠北의 統一系品種栽培效果」<sup>(22)</sup> 등의 論文은 대체로 統一系品種의 多收穫性은 認定하나, 政府의 價格支持가 없이 自由市場에 맡겨두는 경우 統一系品種栽培의 收益性은 一般며보다 못해 마침내 栽培를 기피하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제로 70年代에 特記할 만큼 활발했던 研究는 農家所得增大方案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傾向은 특히 1970年代에 推進된 農村 새마을運動의 所得事業과 直接 間接으로 關聯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sup>(23)</sup>

그 밖에도 1970年代는 工業化내지 都市化에 따르는 農家所得의 地域隔差가 커지고 生産構造面에서는 生計農의 形態에서 商業的 營農形態로 急轉換되어 가던 時期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農村에의 工場誘致에 따라 農外所得의 增大를 追求하던 時期였고 이들 문제에 관한 調査 分析 評價 등도 활발히 進行되었다.<sup>(24)</sup>

以上 農業經營 및 生産經濟學의 研究分野의 變遷過程을 살펴보았거니와 이 分野의 研究論文篇數가 全體 714篇中 30%에 相當하는 比率를 차지한 點만으로도 이 分野가 農業經濟學의 充實化에 있어 중요한 役割을 맡아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 2. 農產物價格 및 流通

農產物價格 및 流通分野에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期間에는 主로 不足한 糧穀을 어떠한 方式으로 管理할 것인가, 즉 完全統制냐 半自由半統制냐 或은 完全自由市場機能에 맡길 것인가 등이 主要爭點이 되었다.

다만 이 기간에는 學界에서도 政策的인 論議에 그쳤을 뿐 아직 研究다운 研究는 없었고 研究의 空白期는 1950年代에도 마찬가지였다.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이 分野의 研究가 시작되었다. 筆者는 1960년에 農業經濟學會誌 『農經研究』 第3輯에 「適正米價의 摸索」이란 題目으로 米作農家の 再生産을 保障하는 데 필요한 限界農家の 生産費를 基準으로 하여 米價를 適正化시킬 方案과 美國에서 實施되고 있는 패리티價格을 소개한 바 있다.

뒤를 이어 吳根培氏의 「米價變動에 관한 時系列的 分析」(『全南大 開發研究』, 제1輯)이 있었고 李春成氏의 「農產物價格安定의 理論과 問題點」에 관한 研究가 따랐다. 吳根培氏는

(22) 『農業經濟研究』, 제18집, 1976.

(23) 鄭英一, 「農業所得의 造分析」(서울대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1973); 張東燮, 「成功農家와 不成功農家의 營農實態比較研究」(『全南大 農漁村開發研究』, 10집); 夏炳郁, 「慶北地方의 地域特性에 따른 營農類型別 農家所得에 관한 調査研究」(『慶北大論文集』, 제19집), 金洪哲, 「韓國農業經營構造改善의 研究」(『東國大論文集』, 제11집).

(24) 金鍾式, 「商業的 營農으로의 轉換可能性과 經營效果에 관한 研究」(『高麗大大學院論文集』, 1971); 裴振鎬, 「韓國農業構造의 改善方案」(『尙州農業專門學校論文集』 제13집, 1976); 張鉉圭, 「農外所得에 관한 研究」(『全北道政研究』, 1976).

1950年代 前半에 外穀導入이 國內米價를 壓迫한 點과 後半에 價格振幅의 緩和과 米擔政策의 奏效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米擔融資規模를 擴大할 것을 建議하였고, 李春成氏는 糧穀管理를 위한 財源捻出方法으로 對日請求權資金의 活用을 강조하고 農家의 出血을 防止하지 않을 穀價의 適正化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研究動向은 當時 쌀값을 비롯한 農產物價格이 低位에 있었음을 反映하고 있는데, 특히 1950年代의 低穀價의 움직임을 美國의 剩餘農產物의 導入과 關聯시켜서 다른 또 하나의 研究가 있었다. (25)

그러나 1968년을 出發點으로 하는 高米價政策이 1970年代 前半까지 지속되면서 농민의 增產意慾의 고취와 農家所得의 向上에 크게 寄與한 바 있다. 그러나 高米價政策의 否定的인 側面에 着眼, 그 代案을 내기 위한 研究도 없지 않았다. 姜泰景氏는 高米價政策이 米穀商品化率이 높은 大經營에 有利할 뿐 大多數小農層과 都市低所得層의 家計負擔 및 物價上昇의 要因이 되는 등 副作用을 分析하고 그보다 農用資材價格을 補償해 줄 制度를 提議하고 있다.

그리고 高米價政策에 따르는 糧特會計上 赤字累增의 解決方案에 關하여는 林潤潤, 「새로운 米價制와 財政」(高大 『農林論集』, 14집)에서, 糧特赤字의 一般會計로의 轉入을 원하는 한편 高所得消費者層에 대한 高位의 消費者價格을 設定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와 같은 農產物價格에 關한 政策問題의 研究에 대해 1970년대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計測的인 研究가 적지 않게 수행되었다.

한편 農產物流通分析의 研究는 1960年代 後半 財政的인 理由에서 米麥以外의 農產物의 價格을 支持해 줄 수 있는 實情에서 餘他農產物價格의 安定化의 問題로 關心이 옮겨 가면서 부터 활발해졌다.

1960年 및 70年代에는 100篇이 넘는 研究와 論文發表가 있었다. 1960年代 前半까지만 해도 穀物去來에 관심이 컸고 蔡丙錫氏는 그의 論文 「韓國在來의 穀物去來機關의 發達」(26)에서 江華條約締結 이후 客主와 樞負商 및 居間 등의 役割을 說明하고 해방 이후의 委託物販賣에 있어서의 브로커의 役割과 그 存在理由에 대해 설명하였다.

農產物의 마케팅에 關한 本格的인 研究는 1960年代 後半부터이며 그 研究範圍와 內容이 매우 多樣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첫째 農產物加工業의 收益性에 關한 연구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7)

(25) 尹孝稷, 「美國의 剩餘農產物의 導入이 우리나라 農業에 미친 影響」(『建國大學術誌』, 제8집, 1967).

(26) 『서울市立農大論文集』, 1963.

(27) 1968년의 具千晝, 「油脂加工事業의 타당성 조사보고」를 비롯한 「양과貯藏事業」, 「加工農產物의 海外市場開拓을 위한 연구」(농어촌개발공사) 등.

둘째 各農産物의 品目別 市場研究가 활발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돼지流通에 관한 研究를 비롯하여 딸기, 高等菜蔬, 양송이, 포도, 소 등 品目別 流通에 대한 研究가 진척되었다.

셋째 農用資材 및 投入物의 流通研究가 활발해지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大部分의 연구가 1970年代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

成培永, 沈永根, 다알(D.C. Dahbl)의 共同研究인 「肥料需要豫測 時系列分析」(『農經研究』, 제15집, 1974)을 비롯하여 潘性統, 「飼料需給에 관한 研究」(『서울대 農學研究』, 제3권, 1978); 許信行, 「農藥의 豫防 및 偶發需要」(티네소타州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8) 등이 그 代表的인 研究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農産物加工施設의 立地決定(location)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점이다. 물론 數의으로는 한 두 篇에 지나지 않았지만 徐鍾赫, 「畚作地帶에서 양송이 가공공업이 地域農村經濟에 미친 影響에 관한 연구」(『서울대 大學院論文集』, 1972)<sup>(28)</sup>는 이에 대한 關心의 表明이다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70年代 政府의 輸出增大政策의 影響을 받아 農産物 및 加工農産物의 海外市場 開拓問題에 대한 關心度가 높아진 점, 그리고 農産物流通에 관한 情報活動의 강화 또는 農産物의 規格化 및 等級化의 擴大 普及을 위한 研究가 한층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sup>(29)</sup>

以上 1945년 8.15解放以後의 農産物價格 및 流通에 관한 研究의 範圍와 內容의 變遷을 살펴 보았거니와 이에 대한 研究는 始初的인 段階에 있다 할 수 있다. 農産物品目別 마케팅研究가 아직도 未洽하고 특히 유통경로나 流通의 段階別 市場費用 및 差益研究가 매우 不足하며 특히 農産物마케팅管理에 관한 研究는 全無의 상태에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이다.

그것은 우리 農民의 營農構造가 대체로 零細하여 그 販賣의 문제가 農民으로부터의 關心에 의해 제기되었다기 보다는 規格化, 等級化, 衛生 등을 원하는 農産物消費者나 去來商人, 投資業體 또는 政府의 立場에서 接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3. 農業信用 및 團體

農業信用 및 團體에 관한 研究는 他分野에 비해 비교적 不振한 편으로 그동안 33篇 정도

(28) 이 論文은 양송이 加工業이 지역농촌의 소득에 미친 效果를 비롯한 雇傭效果, 農業生産에 미친 影響 등을 실증적인 調査를 통해 계수적으로 밝힌 바 있다.

(29) 鄭福祚, 「農産物標準等級化問題에 대한 經濟的 考察」(高大, 『農林論集』, 17); 趙光鎬, 「牛肉 및 豚肉의 等級化 標準化에 의한 流通構造改善에 관한 研究」(서울대 大學院 碩士論文, 1975); 金成烈, 「韓國에 있어서 效率的인 農産物市場情報」(『農業政策研究』).

의 研究論文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團體를 제외한 信用에 관한 研究는 不過 5篇 정도에 그쳐 있다. 農業信用研究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74년에 발표된 趙漢實氏의 「日帝下の 金融政策과 韓國農村經濟의 分解過程」(『仁川教大論文集』, 제9집)은 歷史的인 研究로서 現實問題에의 接近은 그보다 늦었다.

1970年代의 後半에 이르러서 玄公南, 「韓國農家의 消費-貯蓄行態分析」(『農村經濟』, 제1권, 1978)에서 貯蓄性向의 計測을 비롯하여 消費函數의 導出, 農家貯蓄能力의 검토 등의 作業을 한 바 있고 金榮喆, 「小農에서의 信用利用과 資源配分에 관한 研究」(Andhra University, India, 1979, 英文)에서 우리나라 農家의 借入諸要因에 대한 限界分析 및 償還率에 관한 諸要因에 대한 回歸分析 등을 試圖한 바 있다.

한편 우리의 農業信用과 組織의 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農村의 契研究에 있어서는 姜昌圭氏의 「契가 里洞農協에 미치는 영향」(『農業經濟研究』, 제8집, 1966)을 비롯하여 李秉東氏의 「農村契의 機能에 관한 研究」(『농민과학연구논문집』, 제4집, 1971)와 崔在律氏의 「韓國農村의 鄉約契研究」(『全南大教授論文集』, 제19집, 1973) 등의 研究가 있었다.

農協의 現實問題에 관한 分析評價研究로서는 尙戊達氏의 「里洞農協의 今後의 諸問題點」(『嶺南大論文集』, 제1권, 1967)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의 研究는 주로 우리 農協의 바람직한 機能에 관한 發表였다.

이와 같이 農業信用 및 團體에 관한 研究가 비교적 不振한 데 비하여 農業發展이나 資源開發을 다룬 研究는 많았고 해방 이후 약 193篇의 研究論文이 발표되었다.

이같이 研究活動이 활발해진 것은 第2次 經濟開發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年 이후의 일이며 1960年代 前半까지에 發表된 論文數는 11篇에 不過하였다.

#### 4. 農業發展 및 資源

農業資源研究分野에서 特記할 만한 사실은 農業資源利用에서의 關心事는 人的資源인 勞動力의 向都離村하는 數의 把握과 그 理由의 究明에 있었고, 다음으로 土地利用率의 提高方案에 대한 높은 關心度였으며, 農業發展問題에의 接近에서는 政府의 科學的인 計劃樹立方案과 農業投資에서의 投資收益率의 계산 및 事業別 投資優先順位의 決定問題, 그리고 農村 새마을事業을 포함한 農村地域開發問題가 重點의으로 다루어졌다.

1950年代만 해도 農業生産에서의 主要生産手段인 農地에 대한 相對의 人口過剩으로 農村勞動力의 限界生産力이 零에 가깝다 할 정도로 낮았을 때, 朱奉圭氏는 1956년에 처음으로 農村의 潛在失業狀態의 把握을 위한 연구<sup>(30)</sup>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농촌에는 약 25%내지 30%

(30) 朱奉圭, 「後進國農業의 潛在失業」, (『서울大農大創立50周年紀念論文集』, 1956).



의 潛在失業이 있다고 밝혀낸 바 있다.

뒤이어 裒文漢, 「遊休勞動力의 利用에 관한 調查研究」(『農業經濟研究』, 제20집, 1959); 柳鍾完, 「農村過剩人口와 小農」(『農業經濟研究』, 제5집, 1962) 등이 따랐으며, 潛在失業問題는 1960年末까지도 農經學徒들 間에 커다란 關心事였다. 1969년에 발표된 李鎔德氏의 論文, 「韓國勞動力에 관한 研究—忠北淸原郡調查」(『高大大學院論文集』, 제1집)에서도 「工業化를 위해 農業部門으로부터 풍족한 勞動力이 非農部門으로 流出될 수 있도록 農業의 近代化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事情은 달라져, 農村에 中堅的 勞動力인 靑壯年層 勞動力의 不足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延圭執氏는 「韓國農業勞動에 있어서의 共同作業에 관한 研究」(『淸州大論文集』, 제7집)에서 當面한 重要課題의 하나가 勞動力不足에서 오는 農業經營에의 壓迫이라고 보고 그 解決方案으로 共同作業의 必要性, 利益, 作業對象 및 共同作業의 阻害要因 등에 대해 論述하였다.

安乘直氏의 論文 「韓國農村地域에 있어서의 雇傭, 勞動, 生産性 및 實質賃金率」(서울大 『經濟論集』, 第12卷)에서도 潛在失業問題가 제기되고, 고용과 勞動生産性 및 賃金率을 關聯시켜서 農村勞動力의 移動問題가 다루어 졌다.

그밖의 資源利用問題에 있어서는 土地 및 水資源利用率의 提高方案에 關心이 컸으며 金厚根, 「山間地帶의 效率의인 土地利用研究」(『淸州農專論文集』, 제1집, 1968)와 吳浩成, 「水資源의 適正配分」(『明知大論文集』, 제9집, 1976) 등이 그에 關한 代表的 研究였다.

한편 1960年代는 經濟開發計劃이 樹立 推進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農業發展計劃의 樹立方法과 效率의인 投資方案에 대한 關心도 적지 않았다.<sup>(31)</sup>

한편 1970年代는 農村 세마을運動과 關聯하여 地域開發에 관한 研究도 매우 활발했던 시기였다. 다만 學術論文으로 볼 수 있는 經濟論文數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 主要研究題目은 다음과 같다.

196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地域開發에 관한 原理의인 論究로서는 蔡丙錫, 「地域社會開發事業을 論함」(『東國大論文集』, 創刊號, 1967)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事業의 目的으로부터 形態, 各國의 發達史 등이 收錄되어 있다.

地域社會開發은 社會學者들의 關心事이기도 했으며, 文承珪氏는 「韓國農村發展計劃에서의 地域의 參與」(『韓國社會學』, 제4집, 1968, 英文)에서 地域은 지식제공, 지역계획의 실

(31) 金文植, 「農業部門의 經濟計劃樹立에 관한 研究」, (『農業經濟研究』, 제11집, 1969).

천, 資源의 活用, 실제적인 目標의 提案 및 繼續의인 評價 등을 통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論하고 있다. 그 밖에도 朴正根, 「地域農業의 巨視的 構造分析」(『農業經濟研究』, 제18집, 1976); 李瓚鉉, 「農村 새마을運動 發展方向設定에 관한 研究」(『農業經濟研究』, 제18집, 1976) 등도 地域開發을 重點의으로 다룬 研究였다.

그 밖에도 1970年代末에는 公害問題가 提起되기 시작하였으며 權肅杓, 「食糧과 公害」(『農村經濟』, 제1권)에서 農業發展過程에 農藥과 肥料使用에서 오는 環境汚染, 天敵의 減少, 人畜의 被害 등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 5. 農業制度 및 政策

태방후 農業制度 및 政策에 관한 研究論文은 약 93篇에 달했으며 이 分野의 本格的인 研究도 196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1950年代 後半에도 農地改革 이후 그 功過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를 分析 評價하기 위한 研究가 4篇 있었고, 이들은 주로 農地改革 이후의 農地移動狀況에 관한 實證的인 考察이었다. 이와 같은 農地制度(小作制度 包含)에 관한 研究는 계속되었으며 金俊輔教授를 비롯한 朴基赫, 潘性紘, 張鉉圭, 朱奉圭, 王仁權, 趙估九, 鄭英一, 成蒼哲, 金民彩, 韓圭秀, 金炳台, 金容漢, 崔鍾軾, 金大煥, 金東熙, 張鶴植, 朱宗桓, 吳浩成, 朴玄塚, 安仁燦, 姜泰景 諸氏에 의해 수행된 多數의 研究가 있다.

農地制度 및 小作問題에 관한 많은 研究가 遂行되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土地所有關係, 그 利用, 그리고 土地使用料의 授受關係 및 그 利用率의 高低 등의 문제가 學者間에 至大한 關心事로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農業政策에 관한 研究는 비교적 적었으며 趙淳, 「農業生産性的 向上과 그 農業政策에의 意味」(서울大 『經濟論集』, 제6권, 1967, 英文)라든가 李瓚鉉, 「韓國農業의 科學的 分析」(서울大 『農學研究』, 제1권, 1976) 등이 그것이다.

### 6. 農業史

農業經濟學의 細分된 分野別 研究에 있어 數的으로 적은 것은 農業史分野였다. 우리나라의 農業史의 연구는 李弼圭氏의 「水田農耕과 碧骨堤에 관한 史的 研究」(『農業經濟研究』, 제2집, 1958)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李教授는 東洋의 農村社會의 農業生産樣式의 理解를 위해서는 水田史의 接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碧(벼=稻), 骨(골=洞), 堤(물=뚝) 등 많은 貯水池의 築造는 水田인 灌溉農과 旱田耕作의 分岐點이 되었다고 論及하고 있다.

뒤이어 姜普哲, 「高麗前期의 公田利用과 그의 差率收租에 대하여」(歷史學會 『歷史學報』,

제29집, 1965), 朴敬子「高麗朝의 寺院田考察」(淑明女大『淑大史論』, 제4집, 1969); 裴基完, 「日帝下의 韓國水利事業의 變遷過程」(『檀國大論文集』, 제4집, 1970); 金妍愛 「丁茶山의 勸農政策 論—牧民心書를 中心으로」(『淑大史論』 제6집); 朴定子 「李朝初期 公田, 民田甲의 財政節次에 관하여」(『淑大史論』, 제7집); 金宗炫, 「近代英國農業의 展開와 經濟成長」(서울대『經濟論集』, 제6권, 1967); 朴慶成, 「朝鮮後期의 土地制度研究」(『仁川教大論文集』, 제8집); 金容燮, 『韓國近代 農業史研究』; 朱奉圭, 「韓國의 東學農民亂과 獨逸의 農民戰爭에 관한 比較研究」(『農經研究』, 제17집, 1975); 安秉直, 「韓國에 있어서 封建의 土地所有의 性格」(서울대『經濟論集』, 제15권 1호 1977); 李鎬澈 「日帝植民主義下 韓國農業經濟를 형성한 歷史的 前提條件들」(『農教誌』 제9권1호, 1977); 愼鋪履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있어서의 國有地創出과 驛屯土調査」(서울대『經濟論集』, 제17권1호, 1978) 등의 연구가 뒤따랐으며, 解放 이후 1979년까지 모두 약 46篇의 論文이 발표되었으나 全體 農業經濟研究論文中 占하는 比率은 6.4%에 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의 主體性確立을 위해 더 많은 農業經濟史研究가 요망되고 있다.

## VI. 앞으로 研究되어야 할 課題

미처 接近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研究되어야 할 課題나 문제를 간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研究方法에 관하여

- (1) 實證的 研究의 偏重에서 벗어나 規範主義的 研究에도 關心을 가질 必要가 있다.
- (2) 記帳과 農村調査에 바탕을 둔 敘述的 研究가 重視되어야 하겠다.
- (3) 過去 研究結果에 대한 檢討와 補訂的인 再研究가 필요하다.

### 2. 分野別 研究에 관하여

- (1) 農業生産構造研究에 있어서 構造的 變化의 實態把握과 展望, 農民分解의 過程分析, 所望스러운 構造의 形態 등의 研究가 未洽하였다.
- (2) 農業經營 및 生産經濟學分野에서 地域別, 作目別 經營分析의 擴大와 記帳式研究를 필요로 한다.
- (3) 農產物價格 및 流通分野에서 品目別 市場組織의 研究, 市場管理 및 農企業마케팅研究, 農產物의 國際交易, 農產物加工工場의 立地決定 등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農業信用 및 團體分野에서 現農協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農村의 契財 및 基金의 產

業資本化方案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農業發展 및 農業資源研究에서는 農業停滯의 原因究明, 農業諸資源(특히 土地)의 效率的 活用方案, 農村地域圈中心의 開發計劃樹立, 農企業의 育成方案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6) 農業史分野에서는 우리의 主體性確立을 위한 더 많은 깊고 폭넓은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 VII. 結 言

이상 1945年 해방 이후 農業經濟研究가 質的 量的으로 發展해 온 過程을 살펴 보았으며 先進 外國의 學問水準에 匹敵 된따르고 있음을 보았다.

적어도 數理的 接近에 있어서 그 같이 말할 수 있으며 美國의 研究動向도 그 方法面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최근에 主로 사용되는 數學 및 統計學的 技法은 콤투터 函數를 비롯한 레온티에프 投入產出分析, 線型計劃, 게임理論, 重回歸分析, 시물레이션 등으로서 우리의 研究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한다면 分析手段의 活用에 있어 매우 洗鍊되어 있고 研究者가 二次的 模型을 自身의 研究에 알맞게 開發하는 能力을 갖고 있는 점이 그 強點이라 할 수 있다.

實證的 研究에 치우쳐 있는 점도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學會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批判의 소리가 높지만 그들의 研究結果는 農民의 關心事와는 漸漸 距離가 멀어져가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不拘하고 研究課題내지 分野는 우리와 크게 다르다. 우리가 아직 기초적인 係數를 얻는 것이 主된 研究課題로 되어있는 데 反해 美國에서는 厚生問題를 비롯한 食品公害, 農產加工業의 經營, 農產物의 國際交易비지는 世界農業問題, 自然環境管理 등의 문제가 主要研究課題로 되어 있어 美國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려 우리와는 다른 문제에 直面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우리의 農業問題를 다루는 學者層이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에 비하여 너무나 얇다는 데 있다. 研究課題는 農業의 歷史的 變遷에 따라 새로운 性格을 띄고 나타나게 되며 다음 研究는 보다 더 深層의 研究를 要求하게 되지만, 실제로 研究를 담당할 사람이 不足하고 그 資質이 낮다거나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바람직한 研究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 研究의 內面的 充實을 期하기 위하여는 學者의 量的 確保와 隨時修練의 機會가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